

# 건축사 의식형성과 위상 재 정립

The Recovery Direction of Architect's Phase

金基斗/대영건축사사무소

by Kim, Ki-Doo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그 시대의 사회상과 역사를 투영하기 때문으로 건축사는 역사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그 생명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은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구분을 두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는 문화적 유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하고 첨단적인 기술이 반영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우리 건축사의 힘과 정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조악한 것이든 쓰기에 불편한 것이든 일단 세워지면 건물의 경직성과 막중한 시설비 때문에 마음대로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

좋은 건축 또는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사명감 있는 건축사의 자질과 책임감이 중요하고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주가 있어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건축사의 작업은 사색을 통한 지적인 작업이 될 때 아름답고 조화된 도시를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안도감과 편안함과 기쁨을 주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도시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적 내지는 도시적 기능을 살리고 그 고장의 전통과 자량이 되어 세월과 더불어 살아남는 환경이 된다.

오늘을 사는 건축인들은 자기의 생각 보다는 남(건축주)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한번 세워진 건축물은 지상에 표출되어 만인의 주시속에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건축설계 또는 시공감리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21세기를 목전에 둔 건축사는 보다 높은 문화적 자질을 함양하고 서로 경쟁이 아닌 동반의 미덕과 협동으로서 이 시대 건축사의 의식형성과 위상을 재 정립해야 한다.

건축사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29년이 되었고 문민시대로 접어든 지도 1년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의식을 바로잡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고 또 계속 추진중에 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에 우리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잘 살고 오늘과 같이 목에 힘을 주고 살은 적이 또 있었던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시대가 바로 민주시대인 것이다.

이 민주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적의 것이다. 이 기적의 민주시대를 맞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기적의 민주시대를 슬기롭게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준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벌려 놓고는 촌지로 마무리 지을려는 전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1월 건축사지에 기고한 조인숙 회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나 대기업의 발주공사의 설계용역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용기있는 일로 조인숙 회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같은 건축사지에 김화자 회원은 우리 건축사의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였고, 건축에 내리지는 제반규제가 평형을 잃고 있다고 대담하게 기술하였다.

그 많은 전문직 중에서 유독 건축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은 건축사로 하여금 잠시도 마음 편하게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주지않는 현실에 비애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건축사에게 가해지는 제반규제는 건축사가 국가건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나라의 자량은 자연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건설이다. 건설에는 건축사의 작업이 앞서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는 국가건설의 선봉이라고들 말하지 않은가.

조이면 조일수록 건축사의 가치관은 높아지고 이 조임을 우리 건축사는 영광으로 여길지언정 섭섭함이 앞서서는 안된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가 건축사를 알아주는데 그 이상의 영광이 또 있겠는가.

먼 훗날 우리들의 작품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어 이들이 꾸역 꾸역 몰려올 것을 상상만 해도 현실의 아픔은 지난날의 추억으로 봄는 녹듯 지워진다.

우리 4천3백여 건축사가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위상으로 재 정립하여 촌지를 모르는 촌지타도에 앞장서는 건축인이 될 때 건축사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일원이 된다고 감히 결론 짓는다.